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자유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가격, 지역, 업무영역의 세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자유화는 금리자유화, 보험요율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의 자유화는 시장개방 또는 금융영업의 글로벌화로,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금융겸업화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유화 추세 중에서도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가격의 자유화와 금융기술혁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 또는 알피난쯔(Allfinanz)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로 표현되는 종합금융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보험업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겸업화와는 내용 면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겸업화 추세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시장 개방과 맞물려 금융제도의 동조화가 가속됨에 따라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도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외환자유화 계획, 보험시장자유화 계획 등 일련의 금융개방계획을 공표하였는데, 개방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겸업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의 개방은 단순히 시장개방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제도의 변화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수해 온 금융전업주의라는 원칙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겸업화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3년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이어 1995년 말에서 1996년 중반에 걸쳐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의 금융산업개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었고, 최근에는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상호간에는 부수업무를 직접 겸업하는 방식 또는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상호진출이 상당 수준에서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금융업종이 금융겸업화를 통해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겸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제도적·실증적 연구의 부족과 업종간 이해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실정이다. 은행업의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업종에서 겸업화를 위해 은행업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은행은 전통적인 예·대업무 분야에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등의 요인 때문에 증권업 또는 보험업과 같은 타업종으로 진출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권의 움직임에 발맞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공정한 경쟁조건의 정비라는 차원에서라도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겸업화의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논의는 은행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종합금융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1]. 금융겸업화가 진행될 경우 금융기관을 중심

---

1) 본 고에서는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모태가 되어 은행과 증권을 통합한 독일형 유니버설 뱅킹 방식을 취하거나, 보험회사 고유업무에 더하여 은행 및 증권의 부수업무를 겸영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지주회사 또

으로 한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전통적인 업무영역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의 경험에서 볼 때 종합금융기관의 모태가 된 기관의 업종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경쟁의 내용과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금융겸업화와 관련한 규제완화가 세계적으로 어떠한 추세에 있고, 그러한 추세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 금융환경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업종의 업무까지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겸업화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금융기관화에 필요한 업무영역이 무엇이며, 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후에 그들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타업종의 보험판매 참여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인하와 서비스 제고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판매채널 구축 방안과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상품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화에 관한 한 선진국인 유럽 여러 나라 보험회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선택가능한 대안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들 대안전략들을 다시 개별 보험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는 자회사 방식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하여 동일한 브랜드와 경영방침 하에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의 금융겸업화는 금융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고, 종합금융기관화는 금융겸업화라는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유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연구목적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전개될 금융산업개편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앞으로 각 개별금융기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겸업화가 진행될 것이므로 종합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별 보험사가 경쟁력 있는 종합금융기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경쟁력 있는 판매채널의 구축, 고객지향적인 상품개발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해답들을 종합하고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II장에서는 금융산업개편에 대해 전망하면서 금융산업개편의 촉진요인을 살펴보고,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서 발표된 금융산업개편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겸업화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기로 한다. 제III장에서는 금융겸업화의 국가별 및 유형별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IV장에서는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방안, 판매채널 다양화 방안,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보험상품 개발방안을 검토한다. 제V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감안하여 선택가능한 대안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험회사의 규모별로 선택가능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하고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